

예술가와 친구들

조각 같은 얼굴의 조각가...수업시간 여학생들 탄성 세례

황인
미술평론가



최만린은 1933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났다. 호적에는 1935년생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이 본적으로 되어있다. 만주에서 언제 서울로 돌아왔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년에 유년의 기억이 떠오르면 혼자서 만주를 떠올리며 중국 동요를 부르곤 했다.

1947년 경기중학교에 입학했다. 나중에 조각가가 된 한용진(1934~2019)이 동기였다. 이때 동경 미술학교 출신으로 경기중 미술 교사였던 조각가 박승구(1919~1995)를 만났다. 경기중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각반이 있었다. 대개 그나이에는 그림만을 배우다가 대학입시가 가까워졌을 때 조각을 배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경기중 조각반에 들어간 덕분에 최만린은 일찍부터 조각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1949년, 박승구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의 조각상을 제작하였다. 그해 6월 김구가 경교장에서 피살당했을 때, 박승구는 김구의 데스마스크를 땀다. 그 현장 근처에 최만린이 있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스승과 제자가 가까웠다. 1949년, 제1회 국전이 열렸다. 박승구는 목조 작업을, 박승구의 권유로 중학생 최만린은 친구 얼굴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출품했다. 경기중 조각실에서 두 작품을 듣고 최만린은 가까운 경복궁 뒤편의 전시장으로 갔다. 스승은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고 제자는 입선했다.

박승구는 흙을 매우 조심스레 다루는 조각가였다. 흙에 대한 스승의 자세가 제자에게로 이어졌다. 6·25 전쟁 때 박승구가 월북하는 바람에 사제의 인연은 끊어졌다. 최만린은 피난지 부산에서 개설된 경기고를 다녔다. 구덕산 기슭의 천막 교사였다. 난리통에 학업이 1년 늦어졌다.

김구 데스마스크 현장에 있었다는 설도

1953년 환도하여, 1954년 고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했다. 김종영·김세중 교수 아래에서 조각을 배웠다. 외할아버지가 그의 보호자였다. 미대에 진학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긴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속였다. 대학 4학년 때인 1957년, 국전에 모자상을 출품했는데 특선으로 뽑혔고 신문에 작품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손자가 상대생이 아니라 미대생이라는 걸 외할아버지에게 들키버렸다. 외할아버지는 화끈하게 이해하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1958년 대학원에 입학했다. 막상 입학하고 나니 생계가 막연했다. KBS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모집이 있었다. 합격했다. 대학원을 쉬고 아나운서 생활을 3년간 했기에 석사 취득은 1963년으로 미루어졌다. 아나운서 생활을 한 인연으로 KBS 1기 성우 김소원을 만나 결혼을 했다. 김소원 동생인 탤런트 김민자는 탤런트 최불암의 부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만린과 최불암은 동서지간이다. 아나운서 경력 때문인지 최만린은 발음이 분명하고 또 대답할 때도 구어가 그대로 문어가 될 정도로 정연한 언어를 구사했다. 최만린의 대답을 녹취하여 그대로 풀어쓰면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도 완벽한 문장이 되었다.

1964년부터 1965년까지 성북구 정릉에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올린 이국적인 집을 손수 지었다. 이 집은 나중에 서울미대 조소과 후배 박병욱(1939~2010)의 집이 되었다. 1980년, 조각가 최만린은 부산 연지동 LG 연암기념관에 들어갈 길이 30m에 이르는 청동 부조 작품을 맡았다. 제작에 박병욱이 참여했다. 일이 끝나자 최만린은 박병욱



1989년 조각가 최만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각반이 있던 경기중에 간 덕분에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만주 출신 추상 조각가 최만린

전국 유일 조각반 있던 경기중 입학

스승 박승구 만나 16살에 국전 입선

외할아버지 속여 서울대 미대 입학

대학원 입학 후엔 아나운서 생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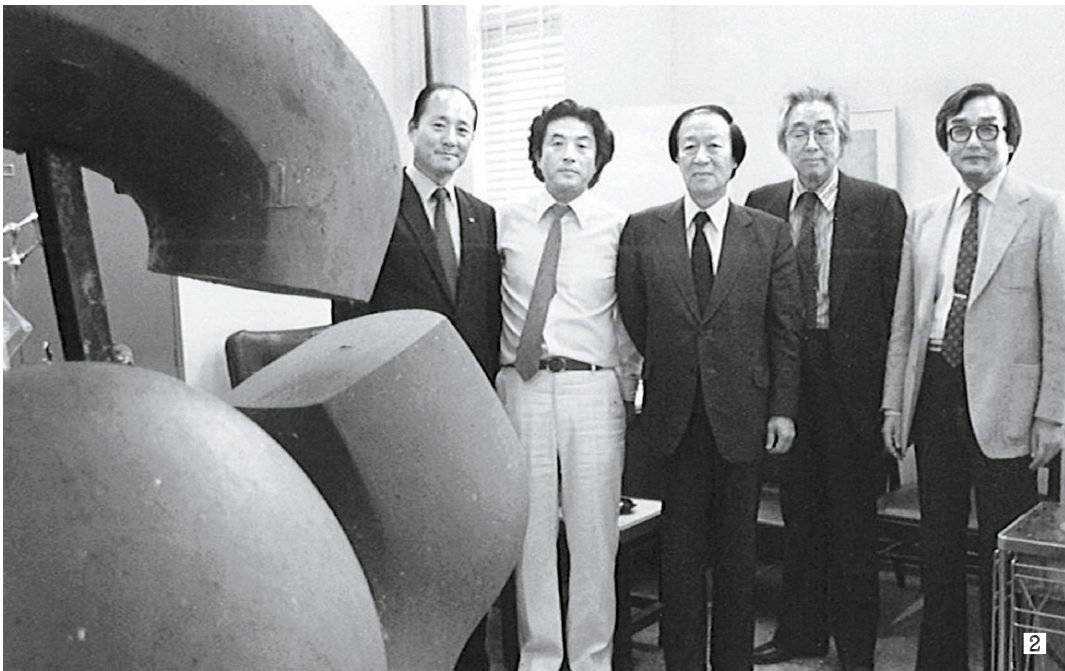
박병욱에 손수 지은 집 반값에 양도

교수 임용된뒤 유학 용접조각 선포



너무나 잘 생긴 외모라 수업에 들어온 여학생들은 탄성을 질렀다. 얼굴도 미남이지만 손도 참 잘 생겼다. 그런데 얼핏 봐도 오른손이 훨씬 더 크고 손가락도 굵었다. 조각가의 오랜 노동의 결과다. 손등과 팔에 난 털이 길고 많았다. 부드럽게 임바람을 불어 손등과 팔등의 긴 털을 쓸어올린 다음 세이코 손목시계를 들추어 보는 동작이 이채로웠다.

팔꿈치에 가죽을 덧댄 까만 스웨터 목 위로 와이셔츠 깃이 살짝 드러나 보이게 한 옷차림을 즐겼다. 비가 오면 대나무 살이 촉촉한 파란색 비닐우산을 들고 다녔다. 학장일 때는 관용차를 뺐겠지만 평교수일 때는 낡은 프라이드 혹은 쏘나타를 타고 다녔다. 소박한 행색이었는데 출퇴근을 할 때만큼은 늘 양복 차림이었다. 학생들에게 간섭은 하지 않았



1 태(胎) 79-15, 1979, 청동, 32×32×30cm. 2 1982년 서울대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최만린(왼쪽 둘째부터), 최순우, 이경성, 서세옥. 〈사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이정훈〉

이 받아야 할 돈으로 자신의 정릉 집을 살 것을 제안했다. 받을 돈은 집값의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 했다. 덕분에 박병욱은 난생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생겼다. 선후배 지간의 아름다운 사연이다.

최만린은 옛집 근처에다 서울미대 조소과 출신의 건축가 조국정의 설계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그 근처에 1988년 작업실용으로 새로 집을 지었는데 2010년, 이 건물을 작업실 겸 거주지로 합쳐 사용하게 되었다. 이 건물이 현재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이다.

처제가 탤런트 김민자, 최불암과 동서지간
1967년, 최만린은 서울대 미대 교수가 되었다.

다. 질문할 때만 답을 해주었다.

최만린의 아들 최아사는 건축가이고, 딸 최아란은 연극배우다. 1960년생인 최아사는 과묵한 아버지에게서 부자유친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 최만린은 가끔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볼 뿐, 여행·골프·바둑·장기 등의 취미가 전혀 없었다. 집에서도 작업 아니면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무취미의 최만린은 신문지이든 편지봉투이든, 집에 종이ga 보이면 모두 그림으로 채워 넣었다.

그런 최만린이 아들에게 가끔 건축 얘기를 해주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의 최아사가 작업실의 진흙을 갖고 놀고 있을 때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통상성당 사진을 보여주었다. 소년이 보기에 통상성당은 너무나 특이한 건축물이었다. 최만린은 "이런 건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 내가 하는 조각 안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최아사는 결국 건축가가 되었다.

최아사의 미국 유학 시절인 1990년, 뉴욕에서 최만린의 손녀 최사라가 태어났다. 서울의 최만린은 실시간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그 기쁨을 '탄생'이란 부제가 붙은 청동 조각 작품으로 표현했다. 1993년, 간담건축에서 일하던 최아사는 재일작가 최재은이 참여한 대전 엑스포 재생조형관의 설계안 브리핑을 맡았다. 발표장에 들어가니 자문위원인 부친이 딱하니 앉아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겨우 브리핑을 마쳤다.

나중에 최만린이 부인 김소원에게 아들의 발표 실력을 자랑스럽게 말한 걸 알게 되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정이 많았던 최만린이었다. 과묵했던 최만린이었지만 노년이 되자 아들에게 자신의 작업의 방향성에 대해 가끔 말해주었다. 그 방향은 생명과 자연이었다.

최만린은 1974년 뉴욕의 프랫인스티튜트에 가서 1년간 수학하였다. 이 학교의 교수로 있던 한국인 조각가 존 배(1937~)를 만났다. 용접조각을 하던 존 배를 만난 건 좋은 인연이 되었다. 천자문의 첫 구절인 천지현황(天地玄黃)을 화두로 모필의 서체에 뿔어져 나오는 기(氣)와 조각적인 조형성의 연결을 실험하던 최만린은 미국에 가서 철사를 용접해 나가며 이들을 이어 붙이는 작업을 시도했다. 철사가 녹으면 그 부분은 말랑말랑한 생장점이 된다. 그 생장점을 종력을 거슬러가니 종력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니 자라나는 생명의 조각이 되었다. 철사 조각 아(雅) 시리즈 작업에 이어 국내로 돌아와 태(胎) 시리즈 작업이 나왔다. 마디마디가 무한하게 이어지면서 부풀어 올라 공간을 품은 유기적 형태의 조각이 되었다.

최만린은 실수 하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긴장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말년에 조용히 중국 동요를 부를 때면 같이 숨겨져 있던 어린아이의 얼굴이 돌아났다. 눈 내리는 만주, 전등 불빛 하나에 인정이 따뜻해지던 유년의 밤처럼.

2020년, 최만린은 육신의 생을 마쳤다. 그의 정신과 예술혼은 정릉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하고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